

“에너지밸리 R&D센터 우리 지역으로” 광주시·전남도 유치경쟁 ‘빛바랜 상생’

10만㎡ 부지에 투자금 수천억
광주시 “부지 3분의1 무상제공”
전남도 “우리도 그 정도는 가능”
한전, 결정 미루고 정부와 협의

민선 6기 들어 상생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는 광주와 전남도가 한국전력의 연구 기관 입지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당초 이 기관은 한전이 자리한 빛가람혁신도시 인근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선 공약으로 이 기관 유치를 내놓은데다가 최근 광주시가 부지 일부를 무상제공하겠다는 뜻을 한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 양상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이 기관은 ‘한전 에너지밸리 R&D센터’ (과거 신재생에너지실증센터)로, 면적만 10만㎡가 넘고 투자 규모도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이 가진 현재 기술은 물론 미래 비전, 전기 관련 연구 개발 및 성과 전시 등의 기능까지 맡게 돼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을 미래주력산업으로 육성중인 광주와 전남도 모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행편이다.

유치전이 벌어지면서 최근 광주시가 부지의 3분의1(100억원 추정)을 무상제공하겠다는 뜻을 한전 측에 전달하자 전남도 역시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논의된 센터 설립 문제가 광주와 전남도의 유치전으로 수 개월째 입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이상 기류도 감지됐다. 한전 측이 광주와 전남도가 서로 입지를 주장하자



카네이션 편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8일 광주 동아여자고등학교(교장 전영타) 1·2학년 학생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고 있다. 학생들은 카네이션 3개를 만들어 2개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부모에게, 나머지 1개는 남구지역 경로당에 전달하기로 했다.

체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부지를 결정하려 했으나 위원회 구성을 감하지 미룬 것이다. 센터 설립사업은 투입 예산이 300억원이 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센터 관련 재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도 모두 유치를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와 갑자기 협의할 것이 생겨서 논의 자체가 조금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전남도는 유치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광주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한전의 기관이니 한전이 부지를 결정하겠지만 뒤늦게는 광주시의 제안에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사업에 지자체가 부지를 일부라도 무상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

다. 일각에서는 광주와 전남도의 무리한 기관 유치 경쟁이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센터 부지 결정이 계속 연기되는 것은 양 지자체의 경쟁 때문일 것”이라며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조율이 가능한데도 독식하려는 자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우~웅 소리에 귀가 먹먹 정신 혼미해 살 수가 없어”

■ 르포-영암 활성산 풍력발전 주변 각동마을 가보니

“귀가 먹먹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피해 보상이 무슨 소용 있느냐. 사람이 먼저 살아야지.”

26일 오후 5시 영암군 영암읍 한대리 각동마을에서 만난 김춘중(75)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약 550m 떨어진 활성산(해발 498m) 정상 주변에 겹겹이 설치된 영암풍력발전(주)의 풍력발전 타워(높이 80m·날개 길이 46m)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다.

업체 “과도한 보상 불가” 갈등

활성산 중턱에 자리한 이 마을은 산골 오지로, 산 정상 주변엔 20기의 풍력발전 타워가 가동되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타워가 가동된 뒤부터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김 할아버지는 “북서풍이 불면 타워의 날개가 돌면서 나는 소음이 마을로 고스란히 전해지는데, ‘우~웅’ 하는 큰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바깥 일을 하지 못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상촌마을 주민들도 풍력발전 타워 애기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마을은 풍력발전 타워에서 약 1km 가량 떨어져 있다. 이 마을 주민 정우중(53)씨는 “(타워가) 가동된 지 2년 가량 됐는데, 이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며 새벽 2~3시엔 잠에서 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김선익(58)씨는 “오늘은 바람이 거세지 않아 ‘우~웅’ 하는 소리는 나지 않지만 저주파도 문제”라고 성토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가 풍력발전시설 피해를 호소하는 영암군 11개 마을(주민 218명), 신안군 4개 마을(주민 181명)의 주민 399명을 대상으로 건강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수면장애, 이명, 어지럼증 등의 건강상 이상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팀은 ▲생리적인 추가 조사 ▲장기간 물리적 환경조사 ▲인과관계 증명 ▲500~1000m 내 주민 집중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오후 4시35분 기준 평균 풍속은 5.0m/s로 북서·북동풍이 불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이면 소음 피해 등이 심각하다면서 즉각적인 풍력발전 가동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신산업 R&D 투자 30% 세액공제·정책자금 80조 투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세제를 신설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세제혜택

버스정보시스템 광주는 안전인가 ▶6면

新팔도유람-경북 영주 선비축제 ▶18면

을 제공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에 나선다.

〈관련기사 2면〉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ICT융복합 및 문화·콘텐츠 분야에 정책자금을 80조원 투입한다. 현행 신성장연구개발(R&D)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30% 공제율을 적용한다. 구조조정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검토하는가 하면, 경기 하방위험 대응을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27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고용사정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부동산시장 활력 유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조치를 내년 7월까지로 연장한다.

또 상반기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 목표치를 당초 268조6000억원에서 275조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1’ 산업개혁 방안을 담은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4대 구조개혁에 더해 신산업 육성과 구조조정 가속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일자리 창출 동력을 키워겠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월 6일 임시공휴일 확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다음달 6일이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공휴일로 확정돼 다음달 5~8일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이날 관광서와 학교는 의무적으로 쉬고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게 된다.

〈관련기사 2·10면〉 정부는 임시공휴일 당일인 5월6일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5월 1일~31일 3인 이상의 가족이 열차를 이용하면 모든 구간의 운임을 20% 할인하기로 했다.

5월 5일~8일 연휴기간 고속·중요·조선양륙·과항관·휴양림·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또 2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연수시설이나 60여개의 공공기관 운동장이나 강당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보고, 먹고, 체험하는 행복한 완도여행!

성공 120주년
2016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Wando ChangPoGo Fishery Festival

5.4(수)	읍면대학 한마음 체육대회 (9시~17시, 공설운동장), KBC 개막 TV축하쇼 (19시30분~22시, 출연진:박현민 외)
5.5(목)	216m 해조류 대형김밭 만들기 (11시~12시), 어린이날기념 K-POP 페스티벌 (19시~21시, 출연진:마마무, SG워너비 외)
5.6(금)	완도 해조류음식 경연대회 (14시~17시), 군민화합 마당 북민가왕 (18시~21시)
5.7(토)	장보고 전통 노젓기대회 (10시~17시), 2016완도 스마일 콘서트 (19시~21시, 출연진:임창정, 이정 외)
5.8(일)	미역데이 기념행사 (14시~15시), 전남도립국악단 공연 (15시~16시)

완도해변공원, 장도청해진유적지 일원

전복, 광어, 건어를 특별 할인 판매전

주최 완도군
주관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2016. **5.4**(수) ~ **5.8**(일) 5일간

facebook 완도축제 - 2016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

완도축제 - 2016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